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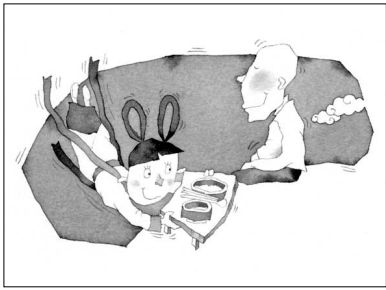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8> 천공(天供)

서점에 들르니 같은 세대의 소설가가 써 놓은 <어머니의 수저> 라는 음식이야기 책이 눈에 띄었다. 가지고 와서 시간 나는대로 몇 페이지씩 읽어내었다. 거기에 참으로 인상적인 표현이 나온다. 평생 바람만 피운 어느 플레이보이 노인네에게 임종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여자가 누구냐?' 고 물으니 '매 끼 정성다해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던 그 여자'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먹고사는 일은 승속을 떠나서 참으로 큰일이다. 오죽하면 '생사일대사'는 '밥먹는 일'이라고 하겠는가. 외국에 나가 오랫동안 살던 스님이 대중처소에 와서 제일 좋은 일이 '내 손으로 밥 해먹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북소리 종소리에 맞추어서 큰방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했다.



천공 받았다는 자장 스님 원효 스님에게 자랑하려다 공부 경지 확인하고 존경

준다고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선녀가 매 끼니는 아니더라도 하루 한 끼 정도라도 밥을 가져오는 상상은 스님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꾸어본 꿈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천공(天供)을 받았다는 선사들이 많다. 신라의 자장도 그렇고 중국의 도선도 그랬다. 그런데 중생심은 그 천공받는 일을 자랑하고 싶기 마련이다. '꽃뭉치 교과서적인 두 스님은 동시대의 경쟁자이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원효나 규기가 내심 못마땅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천공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승려노릇 좀 잡혀라'라고 혼내려고 했는데 웬걸 그날은 천공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다.

도선은 현장법사의 수제자인 규기를 존경하면서도 한편 그의 수행관을 의심하였고, 규기 역시 도선의 앞뒤가 막막한 그 소견머리를 알잡아보았다. 하지만 그가 천공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심 부럽게 여겨 스스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어느 날 도선의 처소를 방문하여 천공을 함께 받고자 하였다. 하지만 진종일 그와 있어도 천공이 오지 않았다. 규기가 떠나고서야 비로소 천공이 왔다. 도선은 "아찌하여 때때로 가져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천신을 꾸짖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늘 규기 스님과 이야기 할 때 백호광명이 눈 뒤에 가득 하여 들어올 길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도선은 규기를 마음으로 존경했다. 자장 역시 천공이 오지 않자 원효가 돌아간 뒤늦게 온 천신의 '호법신장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한 변명을 들은 이후 원효에 대한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것 역시 그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천공으로 인하여 서로의 공부경지를 확인하게 되었으니 밥은 단순한 밥만은 아니었다.

그나저나 이 일요일 아침을 거르고 있는 나에게 어느 선녀가 천공을 갖다줄지 기다려보자. ■ 원효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수행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인!



경전공부를 하고 있는 여래선원 불자들이 이곳 불자들은 경전공부 뿐만 아니라 참선, 염불선, 법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고 있다.

도반들이 내는 회비·보시금으로 운영 월회 100여개 복사해 수시로 드나들어 지난해 15명 시작... 60명으로 늘어나

▶시랑방 같은 도심 수행도량

여래선원은 2005년 8월 문을 열었다. 북구 모라동의 운수사에서 10여 년간 참선과 경전 공부를 이어오던 도반들이 주축이 됐다. '도심 속에서 수행하며 불법을 펴보자'는 원력으로 마음을 냈지만 스님들도 실패를 거듭하는 도심포교당을 재가자들의 힘으로 여법하게 꾸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과 우려

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포교당 개원을 결심하고 나니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주위 여건이 따라 주었다. 여러 도반들의 보시와 참여로 수정역 1번 출구 바로 옆 금강빌딩 4층에 50평 규모의 선원이 마련됐다. 일과 후 쉽게 찾아 정진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수행처가 문을 연 것이다.

여래선원엔 어느 도심 포교당처럼 상주하는 스님은 없다. 오랫동안 참선과 경전공부를 이어온 재가 선각들이 선원 해운정사 선방 등에서 10년 이상을 한해 도 거르지 않고 정진해 온 황갑규(55·현담) 거사와 대하시절부터 경전 강독과 수행에 진력해 오며 경전 공부를 지도해 온 한의사 김진일(47·정명) 거사가 공동 선원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오랫동안 수행해 온 교수, 교사, 한의사 등의 도반들이 도량의 든든한 울타리다.

여래선원은 운영방식도 독특하다. 도반들이 내는 회비와 보시금으로 운영되며 격월로 보시금과 지출내역을 정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 투명하게 관리된다. 또한 월회를 100여개 복사

재가자들이 이끄는 수행처 부산 여래선원

이름난 산에 이름난 절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은 역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여래선원(원장 황갑규)은 '수행이 밥 먹고 잠자는 일상처럼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는 재가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문을 열었다. 개원후 불과 1년 만에 누구나 쉽게 찾아와 참선과 경전 공부로 스스로 삶의 지표를 세워나가고 있는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여래선원은 '명산명찰'이라는 말 대신 '이름난 도심 가운데 이름난 도심수행도량'이 있다'는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가는 선구자로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해 하나씩 가질 수 있게 한다. 수행하고 자 하는 이는 누구나 주인이 되는 공간이다.

황갑규(55·현담) 선원장은 "하늘 아래 이런 수행처가 있을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시작한 시도였는데 막상 이곳을 찾는 분들 모두가 주인의 마음으로 스스로 수행하고 다른 이들이 수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도심포교당의 희망이 보인다"고 자랑했다.

▶선교쌍수(禪教雙修) 원칙 확고

11월 27일 일요일, 여래선원 경전 공부부가 있는 날이다. 8시부터 시작되는 공부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일과를 마친 도반들이 서둘러 선원에 들어선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경전 공부는 법화경에 이어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를 시작한다.

경전 공부는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 참선을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준다. 경전 공부는 불법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연기법에 대해 정견을 갖추게 해 주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정견과 서원에서 참선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여래선원 입문자들은 반드시 경전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김진일 거사는 "경을 바로 보면 그것 자체가 선이며, 선을 잘 하면 그것 자체가 경이 된다"며 "바른 견해를 갖추어야 바른 정진을 할 수 있으므로 경전 공부로 바른 지견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로 서로 스승이요 도반

여래선원에는 스승이 따로 없다. 모두가 스승이고 도반이기 때문이다.

"불교집안의 공부인은 '오직 모를뿐'이므로 묻고 답할 것조차 없다. 그러나

점잖은 선비처럼 입을 다물어 버리면 불교가 망한다. 누구든지 몽둥이를 먼저 맞아야 부처님한테 입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겠느냐?"

황 선원장은 선원장 소임을 '몽둥이 맞는 것'이라고 한다. 몽둥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맞는다는 황 선원장의 말에서 치열한 수행 열기가 묻어난다.

황 선원장은 일대일 대화를 통해 각자가 얽매어 있는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아 주고 올바른 참선법을 지도해준다. 앞서간 선배들은 스스로 몽둥이를 각오하고 입을 열어 후배들을 이끌어 주며 도반들은 서로 묻고 답하는 가운데 그릇된 견해에서 벗어나 정견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여래선원엔 초심자들도 직접 참선 공부를 경험한 선배들의 자상한 지도 덕분에 공부에 큰 도움을 받는다. 15명으로 시작했던 도반이 어느덧 60여 명으로 늘어난 것도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분위기 덕분이다. 오랫동안 닳아는 일하고 밤에는 불법을 공부해온 도반들의 수행열기가 서로의 공부를 격려해주는 좋은 스승이 되고 있다.

"무자정 앓아 있는 것이 참선인줄 알면 더욱 더 참선에서 떨어질 뿐"이라고 지적한 황갑규 선원장은 "'도'는 곧 '숨'이므로 가정이나 직장 생활 곳곳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생활선(生活禪)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래선원은 매주 월요일에는 경전 공부, 매주 수요일에는 법담, 매주 목요일에는 참선 및 염불선, 매주 토요일에는 철야 참선 정진, 일요일 예불 및 법담을 진행하며 도심에 불법의 탄생을 뿌리를 내리고 있다. (051)362-033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여래 여토피 천연 연고비누

천연생약 25종의 성분으로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 생약으로만 제작한 여래여토피 천연연고비누는 각종 특이피부,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두피 가려움증, 비듬, 두피영양부족으로 오는 진행성 탈모증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피하속 혈행을 촉진시켜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사용방법 ■
1) 전신에 거품이 나도록 1~2회 비누칠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2) 부드러운 타올로 적당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해 준다.
3)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여래여토피 무보시 체험방 운영 : 약효의 효능을 확인하시는 기회를 드리려고, 불자들에게 무보시로 약사여래광불의 가피를 체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02)429-5093
011)9166-2575

六壬 受講生 募集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학문이 아닙니다. 실천감정을 통한 천고비전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4매
◆모집인원 : 00명
◆수강료 : 30만원 (하나은행 207-910003-34305 한미교육교류재단)
◆교육기간 : 12주(3개월) 매주 토요일 6:30 오전 10시 ~ 12시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승인 1동 소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개강일 : 2006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접수문의 : 교학과 02) 766-1321 ~ 2
 담당교수 이준목(교과책임회화회장) 011-1763-3567

◆강의내용
※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학문
※ 결혼, 질병, 구제, 주택, 시험, 소송

◆특전
- 전 과정 수료 시 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 본 교육 수료 후 고려유망학회 회원 가입
- 교육 수료 후 창업 준비시 창업컨설팅 무료 상담

중앙대학교 교육원
한미교육교류재단부설
한미HRD교육원
www.kafee.co.kr

“신수 비결” “이름대사전”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역학 개인 지도
• 모집인원 : 3명 • 자격 : 제한없음
• 기간 : 12월 1일 (3개월 예정)
• 역학 및 작명 (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